



친 운남통치가 종결되었다. 그 후, 명나라는 양왕의 가속과 관원, 토착세력인 大理總管 段氏에 대한 대우에 차등을 두었다. 주요 인물은 수도인 南京으로 송환하여 일부는 중국에 남게 하고, 일부 저항이 심하였던 양왕의 가속과 양왕을 초유하기 위해 운남지역으로 왔던 伯伯太子<sup>3)</sup> 등은 제주도로 이주시켰다. 그리하여 원대에 운남 통치의 일환으로 出鎮하였던 몽골 종왕의 후손이 명나라 초에 주원장에 의해 다시 제주도로 이주되는 역사적 사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아무 상관없이 같은 서남 변경 지역의 운남과 한반도 남단의 제주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먼저, 至元 4년(1267) 운남에 출진하였던<sup>4)</sup> 운남왕 후계치(Hugachi, 忽哥赤)부터 운남의 마지막 양왕 바자라와르미(Bazalawarmi, 把匝刺瓦爾密)에 이르기 까지 몽골 종왕의 계보와 襲封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명나라 초에 제주로 이주해 온 몽골 종왕중 양왕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명초에 주원장이 양왕을 초유하기 위해 백백태자를 운남으로 보냈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 운남의 양왕과 백백태자는 원 세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명 태조 홍무시기에 주원장이 운남 지역과 北元을 평정한 후 故元<sup>5)</sup> 後裔들이 몇 차례에 걸쳐 제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원·명 교체기에 제주도의 변화에 대해 일찍이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sup>6)</sup>,

謙次, 『洪武朝平定雲南之戰研究』, 雲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0年)

- 3) 백백태자는 伯伯太子, 拍拍太子, 伯伯賁, 巴拜賁, 巴拜 등으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몽골음을 漢譯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원대에 太子는 儲君을 가르킬 뿐만 아니라 諸王의 아들도 태자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方齡貴, 『元明戲曲中的蒙古語』(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176쪽을 참고하기 바람.
- 4) 周芳, 『元代雲南政區設置及相關行政管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年)중 제6장『元代雲南行政管管理中的宗王出鎮』에 기존의 연구성과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운남에 출진한 9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5) 명나라측의 사료에서 故元이라 표기하고 조선측의 사료에서는 주로 前元이라 하는데, 명초에 주원장에 의해 단행된 몽골족 후예들의 이주를 다루기 때문에 사료 용어인 故元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 6) 高昌錫, 『濟州歷史研究』(도서출판 世林, 2007년)중 제5장 元·明交替期の 濟州島-牧胡

명 태조가 왜 故元 후예를 이국인 제주도로 이주시켰는지, 이들 이주 집단의 생활상이나 對明 관계 등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즉, 원말·명초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세를 ‘馬’ 산지인 제주도와 관련지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雲南의 故元 後裔가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 특히 다양한 성씨의 출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雲南’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앞에서 살펴본 이주 집단과 관련지어 밝혀보고자 한다. 원대에 중창이 완공되었던 법화사가 갖는 의미, 제주도에 전해오는 왕자에 대한 전설이나 유적지와 이들 이주 집단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故元 후예들의 거주지를 상정해 보고자 한다.

명나라 초에 단행된 몽골 종왕의 이주 정책은 원 세조 시기의 대 탐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제주도로 이주해 온 운남의 몽골 종왕과 원 세조와의 관련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당장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제주도를 이해함에 운남지역을 염두에 둔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도 검토해 보게 될 것이다.

## I. 몽골 宗王의 出鎮과 元末·明初の 雲南

몽골족의 운남 이주는 대리원정을 비롯한 몽골제국의 운남통치와 관련이 있음은 필자가 이미 연구하였다.<sup>7)</sup> 원나라는 漠北, 遼東, 吐蕃과 운남 등의 “邊徼襟喉” 지역에 제왕을 분봉하고 출진케 하여 군정을 책임지게 하였는데 운남에 출진한 諸王<sup>8)</sup>은 대부분 “雲南王”, “梁王”이라고 칭해진다. 특히 쿠빌라이 시기 운남왕이 동남아 원정과 관련하여 공을 세웠던 것은 이

亂을 중심으로-를 참조.

7) 裴淑姬, 「蒙元제국의 雲南통치와 諸 종족간의 소통」, 『東洋史學研究』 제114집, 2011년, 3월.

8) 『元史』(中華書局 標點本, 1977年) 권108, 諸王表, 2735쪽. “…元興, 宗室駙馬, 通稱諸王…”

때 운남왕부가 대리에 있었던 것도 유리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雲南王, 梁王 외에도 다른 봉호를 가진 제왕도 출진하였지만,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양왕의 계보중, 후자는 운남왕에서 양왕으로 진봉되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운남행성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종왕이 통치하였고, 운남행성이 설치되고 나서도 몽골 종왕은 계속 출진하였으며, 또한 원래의 행정시스템도 작용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다가 원나라 말 행성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양왕이 전제 정치를 하게 된다.<sup>9)</sup> 몽골 종왕의 운남 출진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출진한 제왕의 이해를 돕기 위해 雲南王, 梁王의 구체적인 계보와 襲封 상황을 살펴 보겠다.

운남지역에 처음으로 출진한 운남왕은 세조 至元 4년(1267)에 봉해진 후계치이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 카말라(Kamala, 甘麻刺)가 양왕으로 봉해지면서 처음으로 운남지역에 양왕이 출진하게 된다. 물론 출진한 시기가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카말라에게 운남왕 외에 새삼스럽게 양왕이라 封鎖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양왕 바자라와르미는 자립하였다.

운남왕에는 후계치, 에센 테무르(Esen Temür, 也先帖木兒), 로우드(Loud, 老的罕)<sup>10)</sup>, 왕선(王禪), 테무르 부카(Temür Buqa, 帖木兒不花), 아루크(Aruq, 阿魯)<sup>11)</sup>, 볼라드(Bolad, 孛羅)<sup>12)</sup> 가 있다. 처음에 운남왕에 봉해졌다가 후에 양왕으로 진봉된 종왕으로는 중샤이(Jungshai, 松山)<sup>13)</sup>,

9)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蒙元제국의 雲南 통치와 諸 종족간의 소통』 각주 8)을 참조하기 바람.

10)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년, 364쪽의 각주 22)에서 『元史』에는 鐵木兒不花의 두 아들로 운남왕 老的罕와 武靖王 捌思班이 보인다고 하였다. 老的罕은 老的으로, 罕은 이름이 아니라 王이라 하였다.(屠寄撰, 『蒙兀兒史記』(北京市 中國書店, 1984年) 권149, 宗室世系表를 참조)

11)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년, 364쪽, 에센 티무르의 아들인 투글룩(Tukluq)은 脫魯인데, 이는 阿魯의 오자라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方齡貴의 『《雲南王藏經碑》新探』(『元史叢考』, 民族出版社, 2004年)중 278-285쪽을 참조하기 바람.

12) 孛刺, 甫刺로도 표기되어진다.

왕선, 볼라드가 있다.<sup>14)</sup> 그러므로 운남의 양왕에는 카말라, 중샤이, 왕선, 볼라드, 바자라와르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운남에 출진하였던 운남왕, 양왕을 시대순으로 성명, 쿠빌라이와의 관계, 封鎖/終任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운남에 출진한 몽골 종왕중 운남왕, 양왕의 성명과 계보<sup>15)</sup>

성명	계보	王號	封鎖, 終任 시기	참고
후계치	쿠빌라이의 여섯째 아들 <sup>16)</sup>	운남왕	지원4(1267) 지원8(1271)	보칼딘등에게 독살당함.
에센 테무르	후계치의 아들	운남왕	지원17(1280) 대덕11(1307)	대덕 11년에 營王으로 進封되어 운남을 떠남.
카말라	황태자 집짐의 장자	양왕	지원27(1290) 지원29(1292)	지원 29년에 진왕으로 改封되어 滇을 떠남.
중샤이	카말라의 장자	운남왕에서 양왕으로	지원30(1293) 지대2(1309)	태정제가 즉위후 운남왕에서 양왕으로 晉升된. 후에 풍질이 있어 北還. 딸이 고려의 瀋王과 결혼함.
로우드	쿠빌라이의 일곱째 아들 오그룩치의 첫째아들 테무	운남왕	지대2(1309) 연우2(1315)	연우 2년 대도로 돌아감.

13) 라시드 앓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년, 361쪽. 카말라의 아들 중 중샤이(Jungshai)는 『元史』에 양왕 松山으로 기록된 인물이라 하였다.

14) [法] 韓百詩著 張國璣譯, 『元史諸王表箋證』, 湖南大學出版社, 2005년 6월. 양왕은 제1등으로 金印獸紐를 받았고(카말라, 중샤이, 왕선), 운남왕은 제4등으로 金銀銀駝紐를 받은 것(후계치, 에센 테무르, 로우드)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봐도 양왕은 운남왕보다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9-13쪽, 280쪽 참조)

15) 『新元史』(臺灣 開明書店, 民國 51年)의 52쪽, 宗室世表中 世祖諸子世表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元史』 권107의 「宗室世系表」, 제108의 「諸王表」, 屠寄撰, 『蒙兀兒史記』 권149, 「宗室世系表」와 『高元史』의 해당부분, 『칸의 후예들』, 紀 八의 제1장 쿠빌라이 카안기, 方國瑜의 「元梁王史迹」, 『雲南王梁王年表概說』과 『滇雲歷年傳』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르 부카의 아들			
왕선	중샤이의 아들	운남왕, 운남왕 에서 양 왕으로	연우7(1320) 태정원년(1324)	태정 원년에 태정제에 의해 梁 王으로 진봉됨. 天歷 원년 전 사함.
테 무 르 부카	왕선의 아들	운남왕	태정원년(1324) 태정4(1328)	天歷 2년에 宣襄王 으로 改封 됨.
아루크	에센 테무르의 아 들	운남왕	원통2(1334) 지정원년(1341)	언제 운남을 떠났는지 불확실 함.
블라드	에센 테무르의 아 들	운남왕, 운남왕 에서 양 왕으로	지정년호 시기 명홍무5(1372)	대청도로 유배되어짐. 고려에 사신을 보내움.
바자라와 르미	블라드의 아들	양왕	명홍무5(1372) 홍무14(1382)	원나라가 중원을 상실, 운남의 마지막 양왕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운남왕에서 양왕으로 進封되는 것을 봐도 양왕의 지위는 운남왕보다 높다. 운남왕이나 양왕에 봉해진 종왕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쿠빌라이의 근친임을 알 수 있으며 후손이 襲封되어진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크게 세 지파로 나눌 수 있는데, 쿠빌라이의 여섯째 아들인 후게치 계통, 황태자 짐김 계통, 쿠빌라이의 일곱째 아들인 오그룩치(Ogruqchi, 奧魯赤) 계통이다.

다음 장에서 탐라로 이주한 양왕의 가족을 살펴볼 것이므로 양왕의 계보를 보면 세조 쿠빌라이의 여섯째 아들인 후게치--> 에센 테무르--> 블라드--> 바자라와르미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카말라, 중샤이, 왕선도 양왕을 지냈기 때문에 양왕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이들을 거론할 여지도 있으므로 카말라, 중샤이, 왕선을 살펴보겠다. 카말라는 至元 27년

16) 元史에는 다섯째 아들로 되어 있다.(『元史』 권107, 宗室世系表, 2724쪽)

(1290)에 처음으로 양왕에 봉하여 운남을 지키게 했는데, 지원 29년에 진왕으로 改封되어 滇을 떠났다. 그 후, 지원 30년에 아들 중샤이로 운남을 지키게 하고 양왕의 印을 주었으나 품질이 있어 北還하였다. 그 다음 왕선은 泰定 3년(1326) 운남을 떠나 북방으로 갔으므로 그 후손도 운남에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쿠빌라이의 여섯째 아들 후계치 계통이 운남에 있던 양왕의 후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계치는 보칼린 등에게 독살당했고, 아들 에센 테무르는 대덕 11년(1307)에 僖王으로 진봉되어 운남을 떠났다. 그 다음, 지정 15년(1355)에 운남왕으로 있던 블라드가 공이 있어서 양왕으로 진봉되었다.<sup>17)</sup> 블라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상당 기간 운남에 머물렀다. 그 사후에 아들 바자라와르미가 지정 27년에 자립하여 양왕이라 칭하였다.<sup>18)</sup> 이렇게 본다면 제주로 이주한 양왕의 가숙이라 한다면 운남왕에서 양왕으로 進封된 블라드, 마지막 양왕 바자라와르미 계통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운남의 마지막 양왕 바자라와르미는 宣光이라 개원하고, 그 해에 중단되었던 科擧도 회복하여<sup>19)</sup> 臨安廉訪使 支渭興으로 하여금 시험을 주관하게 하고 관직을 제수한 내용이 보인다.<sup>20)</sup> 원 순제 지정 16년 후에도 여전히 雲南行省의 관부도 존재하고 관원도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었지만 양왕의 “便宜行事”가 몽원통치를 유지하는데 더욱 유리하였다.<sup>21)</sup>

홍무 원년(1368, 至正 28년) 明軍이 대도를 침략하자 원의 토곤 테무르

17) 屠寄撰, 『蒙兀兒史記』(北京市 中國書店, 1984年) 권105, 梁王把匝刺瓦爾密, 666쪽.

18) (清)倪煥輯; 李埏校点, 『滇雲歷年傳』(雲南大學出版社, 1992年) 권5, 起太祖乾德三年 盡元順帝至正二十七年, 239쪽.

19) 위의 책.

20) 平章段功 등의 관이 때로는 양왕이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馮甦, 『十一總管』, 『滇考』(臺灣成文出版社, 2007年), 255쪽) 副樞密使燕帖木兒 “양왕의 厚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李中浮, 『人物 曲靖府 烈女』, 『雲南通志』 권11(蘭州出版社, 2004년 판본, 21冊, 274쪽)

21) 李治安, 『元代政治制度研究』(人民出版社, 2003年)중 제3장 “投下與蒙古諸王制度”중에서 505-507쪽 참조. 方貽貴, 『《新元查·雲南行省宰相年表》補正』, 『元史叢考』, 民族出版社, 2004年.

는 상도에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런데도 운남의 양왕은 명나라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운남지역을 고수하고, 해마다 塞外로 사신을 보내 충의를 표명하였다.<sup>22)</sup> 명 태조는 운남지역의 초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는데 홍무 6년(1373) 冬 12월에 사자 王禕를 보냈으나 피살되자<sup>23)</sup>, 홍무 7년(1374) 秋 8월에 故元 威順王 寬徹普化<sup>24)</sup>의 아들 伯伯太子를 보내 梁王을 초유하게 하였다.<sup>25)</sup> 명 태조는 “운남의 토지와 인민은 본래 대리에 있다는 것을 서두로 이미 원나라가 쇠퇴했으니 마땅히 명나라에 귀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남 원래의 지배자인 대리 단씨와 연락하여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명 태조의 초유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양왕을 자극하였던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백백태자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중역을 맡기게 되었을까? 백백태자의 아버지는 威順王 寬徹普化인데 세조의 후손으로<sup>26)</sup> 쿠빌라이의 열한 번째 아들 鎮南王 토칸(Toqan, 脫歡)의 아들이다. 『元史』에는 老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sup>27)</sup> 어찌되었건 백백태자의 아버지는 쿠빌라이의 근친임을 알 수 있다. 백백태자는 일찍이 홍무 원년(1368)에 명군이 대도를 공략할 때 포로가 되었던 宣讓王, 鎮南王, 威順王의 諸王子 6명 중의 한 사람으로 명나라에 귀화하였다. 명 태조의 운남 초유책은 일종의 以夷制夷策으로 양왕과 가까운 친족을 보내 회유하려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때 운남으로 왔던 백백태자는 대도로 돌아가지 않

22) 屠寄撰, 『蒙兀兒史記』 권105, 梁王把匝刺瓦爾密, 666쪽. “中國無蒙兀尺寸土而王守雲南自若. 歲遣使經西蕃中, 繞出塞外, 達行在所, 執臣節如故.”

23) 『明實錄雲南事迹纂要』중 明取雲南前之七次招諭를 참조, 2-3쪽. (『雲南史料叢刊』 제4권)

24)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金印을 사하였다. (앞의 『元史諸王表箋證』중 부록 348쪽을 참조 바람.)

25) 『明太祖實錄』(『明實錄』중 『太祖實錄』, 이하 『明太祖實錄』이라 함, 경인문화사 영인본, 1989년) 권92, 1608쪽. 洪武七年八月戊戌條, “遣故元威順王子伯伯齋詔雲南, 今特遣爾親威威順王之子往諭, 如上順天命, 下契人心, 即率貢來庭即, …”

26) 『元史』 권117, 寬徹普化傳, 2910-2912쪽.

27)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년, 365쪽. 이 책의 주 31)에서도 『元史』 권107의 『宗室世系表』에 老章의 아들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 운남에 머물다가 명나라가 운남을 정복한 후 경사로 송환되었다가 다시 제주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명 태조는 홍무 8년(1375) 湖廣行省 參政 吳雲을 운남에 보내 양왕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그 때 마침 양왕은 鐵知院 등 20여명을 막북에 사신으로 보냈다가 徐達에게 포로로 잡혀 경사로 압송되었다. 명 태조는 이들을 전부 석방하여 吳雲과 함께 운남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오운이 철지원에 의해 살해되고<sup>28)</sup> 양왕이 명나라에서 도망한 軍民과 범죄자를 수용하고 명나라 변경을 지키는 장령을 초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sup>29)</sup> 명 태조는 지금까지의 운남 초유책을 포기하고 무력으로 정복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홍무 14년(1381, 天元3년) 秋 9월에 傅友德을 征南장군으로 삼고, 藍玉과 沐英을 左右 부장군으로 삼아 30만 군사를 이끌고 운남을 정벌하게 하였다. 명 태조는 대리 단씨와 운남 양왕간에 분화정책을 취하여 명군이 양왕을 진격할 때 대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출병하여 원조케 하였다.<sup>30)</sup> 상황이 불리해진 양왕 바자라와르미는 妃屬과 친신 達德, 驢兒와 함께 滇池에 투신하였다. 홍무 15년(1382) 윤 2월 명군이 대리를 공격하여 단세 등을 사로잡아 운남이 평정되고 그 동안 사용해 오던 복원 昭宗의 년호인 宣光을 중단하고 명나라의 정삭을 받들기 시작함으로<sup>31)</sup> 운남지역은 사실상 명나라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서 약 128년에 걸친 기나긴 몽원제국의 운남통치는 종결되었다. 이후, 원나라의 관료, 귀족들은 복환할 수 없어 대부분 운남에 남게 되었지만 일부는 명 태조에 의해 남경으로 송환되었다.

28) 『明史紀事本末』(叢書集成初編本, 中華書局) 권12, 太祖平滇, 47쪽.

29) 張統, 『雲南機務抄黃』(雲南史料叢刊 제4권) 勅諭, 561쪽. “皇帝詔曰曩因雲南匪有罪, 納逋逃, 惑我邊守, 命將潁川侯帥甲士三十萬, 問罪梁王…”

30) 王世貞, 『弇山堂別集』 권85, 大理戰書, 啟世與傅友德書 2.

31) “重修陽派興寶寺續置常住記”는 元 宣光6年(명 홍무 6년(1373)) 唯止庵僧用源이撰한 것으로 姚安路이며 古名은 弄棟川이다. (張方玉主編, 『楚雄歷代碑刻』, 雲南民族出版社, 2005년, 25-26쪽)

## II. 故元 後裔의 濟州 이주

운남지역이 평정된 후 명나라는 저항이 심하였던 양왕의 가족과 관원, 토착세력 단씨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였다. 주요 인물은 수도인 남경으로 송환하여<sup>32)</sup> 일부는 중국에 남게 하고, 양왕의 가족과 백백태자 등은 한반도의 제주도로 이주하게 되는데 백백태자에게는 衣 1襲과 馬 10匹을 하사하였다.<sup>33)</sup> 이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제주도로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적지 않은 숫자일 것이라 생각된다. 운남의 마지막 양왕인 바자라와르미와 그의 부인은 滇池에 투신하였으므로 양왕의 가족이란 남은 후손과 친척을 말함이고, 다른 한 계통은 위순왕 寬徹普化의 아들 백백태자와 그 아들 등이다. 백백태자는 주원장이 원의 수도인 대도를 점령할 때 명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 귀화한 후 명나라에 의해 운남 양왕의 초유를 맡았던 인물이므로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양왕의 후손과 대우가 달랐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사로 송환되지 않았던 양왕 후손의 일부는 명이 건국되고 나서 그대로 운남에서 숨어 지냈는데 성을 '太'로 바꾸었다. 경사로 호송되었던 觀音保, 車里不花에게 관직을 제수해 주고, 段世의 두 아들인 苴仁, 苴義는 사면해 주고 특별히 歸仁, 歸義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sup>34)</sup> 표면적으로 우대해 준 것 같지만 실제로 段氏의 운남에서의 영향력

32) 운남에서 경사(당시 남경)로 옮겨진 몽골족에 관한 숫자도 사료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다. 『滇裏歷年傳』 권 6, 起太祖洪武元年 盡英宗正統五年에 의하면 2천 1백 16명이라 하였고(250쪽) 『鴻猷錄』(총서집성초판본) 권6, 廓清滇南에서는 3천 1백 18명이라 하였으며(67쪽), 『明史紀事本末』 권12에서는 318명이라 하였다.(50쪽)

33) 『明太祖實錄』 권144, 2263쪽. 명태조실록과 명사에서는 양왕 바자라와르미와 위순왕의 아들 백백 등의 가족이 제주로 왔다고 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왕 바자라와르미는 滇池에 투신하였으므로 중국측 사료의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 또한 명태조실록에서는 이들의 이주가 홍무 15년 4월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남경에서 출발 시기인 것 같다. 남경에서 고려를 경유하여 제주로 왔기 때문에 고려사의 기록처럼 7월에 제주도에 도착했으리라 생각된다.(『高麗史』 권134, 辛禰 8년 7월조)

34) 胡蔚, 『增訂南詔野史』 下卷, 段世傳.

을 말소시킨 셈이다. 원말·명초에 단씨는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대부분 참살당하였다.<sup>35)</sup> 이렇게 명나라는 중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양왕의 후손과 토착세력인 단씨 일족이 재기할 여지를 없앤 셈이다.

홍무 15년(1382, 禡王 8년) 7월 고려는 명나라가 운남지역을 평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밀직사 柳藩을 명나라로 보내었는데<sup>36)</sup> 그 축하 표문에 이르기를 “귀국의 통일은 중국의 새로운 기초를 세워 놓았고 우리와 같은 당신의 군대는 위엄을 남쪽 끝까지 떨치었습니다...”고 하였다. 李穡도 운남의 평정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으며<sup>37)</sup> 조선초기 사대부들이 명나라가 “운남을 평정하여 양왕 가숙을 제주에 안치한 것”에 대해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sup>38)</sup> 명나라의 운남 평정은 서남 변경지역의 강대한 세력을 제거하여 더 이상 복원을 원조할 양왕 정권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나가추(Nagachü, 納哈出), 北元 사이를 관망하던 고려가 대명 친선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운남지역은 멀리 서남 변경지역에 위치하였지만, 몽골 종왕인 양왕 중샤이, 운남왕(후에 양왕으로 진봉됨) 볼라드는 고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먼저, 양왕 중샤이를 살펴보면, 고려의 沈王 王暘가 梁王 중샤이의 딸과 결혼하였음을<sup>39)</sup> 알 수 있다. 『고려사』에서도 왕고가 양왕 중샤이의 딸 某國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이름이 納倫이라 하였다.<sup>40)</sup> 중샤이는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至元 30년(1293)에 운남에 출진하라는 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대덕 9년에 성종은 “양왕이 운남행성의 일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조서

35) (明) 倪輅(清) 王松校理(清) 胡蔚增訂; 木芹會證, 『南詔野史會證』(雲南人民出版社, 1990년) 段明傳, 369-372쪽 참조.

36) 『高麗史』 권47, 禡王 8년 7월조.

37) 『牧隱詩稿』 권32(한국문집총간 4책), “子安來議賀平雲南表”, 464쪽.

38) 『東文選』(조선고서간행회, 大正 3년) 권32, 賀朝廷平定雲南發遣梁王家屬安置濟州表, 144-5쪽.

39) 『蒙兀兒史記』 권151, 公主傳, 968쪽. “某國公主, 梁王松山女滴瀋王王暘.”

40) 『高麗史』 권35, 16년 정월 기미조, “瀋王公主納倫之喪至自元.”

를 내렸으며”<sup>41)</sup> 至大 2년(1309) 풍질이 있어 운남왕 노우드로 대신하게 하였다. 중사이가 17년간 운남지역에 출진하였는데 그의 딸이 언제 심왕과 혼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음으로, 운남왕 블라드도 고려와 관련이 있던 인물이다. 블라드는 영종 至治 3년(1323) 8월에 南坡 역모에 가담했다가 태정제가 즉위한 후에 海島(현재의 大靑島임)로 유배되어졌다.<sup>42)</sup> 그 후, 충숙왕 16년(1329) 3월 경진일에 소환되어 아루크 사후에 상당 기간 운남왕, 양왕으로 재위하였다. 그러므로『고려사』에 충정왕 2년(1350, 원 지정10년) 3월 을축일에 운남왕이 사신을 보내왔다고 한 것은 블라드라고 추정된다. 또한, 공민왕 2년(1353, 원 지정 13년) 2월 정묘일에 운남왕 블라드가 사신을 보내 왕과 공주에게 연회를 베풀었다<sup>43)</sup>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블라드는 남파 역모에 가담하여 한때 고려에 유배되어졌다가 후에 운남왕이 되고 나서 고려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블라드는 운남의 마지막 양왕 바자라와르미로 이어지며 이들의 후손이 제주도도 오게 되었던 것이다.

至正 28년(1368) 토곤 테무르(Togon Temur, 妥懽帖木爾)가 개평으로 복귀한 이듬 해 제주도에 피난궁전을 만들려고 했지만<sup>44)</sup>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2년 후에 應昌에서 죽고 태자 아유시리다라(Ayusiridara, 愛猷識理達臘)가 즉위하였다. 명과 북원의 30여년의 간헐적인 전쟁이 지속되다 홍무 20년(1387, 天元 9)에 나가추가 항복한 후, 홍무 21년 4월에 藍玉이 이끄는 명군의 급습을 받은 토구스 테무르 정권이 무너지고 상당수의 인원이 포로로 잡혔다. 그 중, 達達親王 등의 故元 후예를 제주도로 이주시키고자 생각한 명 태조는 당시 鐵嶺衛 설치를 중지하기 위해 명나라에 왔

41) 『元史』 권21, 成宗紀 4, 大德 9년 3월 庚戌조, 463쪽.

42) 『元史』 권29 泰定帝本紀 1, 641-2쪽. “至治三年十二月癸未, 流諸王月魯鐵木兒于雲南, 按梯不花于海島, 曲呂不花與奴兒干, 孛羅及兀魯思不花于海島, 并坐與鐵失等逆謀.”

43) 『高麗史』 권38, 공민왕 3년 2월 정묘조.

44) 『高麗史』 권41, 공민왕 16년 9월조. “時王召元朝梓人元世于濟州, 使影殿世等十一人挈家來. 世言於宰輔曰, 元皇帝好興土木, 以失民心, 自知不能卒保四海, 乃詔吾輩, 營宮耽羅, 欲爲避難之計…”

던 朴宜中에게 명나라 예부에서 보낸 공문을 가지고 귀국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탐라 섬은 옛날 원 세조의 목마장이다. 지금 원나라 자손으로 귀순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나는 기어코 원나라의 후손들을 단절시키지 않을 생각인즉 諸王들을 탐라 섬에다 두고 수만 명의 경비병으로 호위해 주며, 兩浙의 양곡을 운반하여다가 보급해 주어 원나라의 후손들을 존속시키고 원나라 자손들이 海中에서 한가한 세월을 보내게 해 주겠다.”<sup>45)</sup>

고 하였다. 탐라 섬은 원대부터 원나라 자손이 많이 거주하였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남에서 양왕의 후손과 백백태자 가족의 이주가 몇 년 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故元 후예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되며 중국 동남의 양절지역에서 식량을 운반하여 몽골 종왕들을 부양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 백백태자에게는 쌀과 콩 4백 곡, 紵布·麻布 30필을 하사하고, 양왕의 후손에게는 쌀과 콩 1백 곡, 紵布·麻布 10필을 하사한 것을 보면<sup>46)</sup> 경제적인 지원은 조선측에서 부담했던 것 같다. 명 태조의 뜻이 반영되었는지 제주도로 이주한 이후에도 백백태자는 양왕의 후손에 비해 우대되었다.

홍무 21년(1388, 辛祐 14년) 12월에 명태조가 前 원나라의 院使 喜山과 大卿 金麗普化 등을 고려에 파견하여 말과 宦者를 요구해 왔는데, 이 때 희산 등이 명 황제의 말을 전하기를,

“북방을 정벌하였을 때 귀순하여 온 達達親王 등 80여 호를 모두 탐라로 보내 거주하게 하고자 하니, 너희가 고려로 가서 이 사유를 설명하고 탐라로 사람을 보내 정결한 장소에 그들이 거주할 집을 마련케 하고 모두 돌아와서 보고하라”

45) 『高麗史』 권137, 신우 14년 6월조.

46) 『太祖實錄』(『朝鮮王朝實錄』중 『太祖實錄』) 4년(1395) 5월 8일.

고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典理判書 李希椿을 제주에 보내어 새 집, 헌 집들을 수리하여 거주할 만한 집 85개 소를 준비하였다.<sup>47)</sup> 85호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수의 인원이 제주도로 왔음을 알 수 있다.

명태조가 운남과 복원을 정복한 후 故元의 종왕을 탐라에 거주하게 한 것은 먼 이국의 섬으로 이주시킴으로서 재기를 막고 불편없이 유유자적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因俗而俗”으로 몽골인의 생활습관도 고려한 것이다. 즉, 몽골인들은 水草가 우거진 곳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제주지역은 원나라 때 이미 상당수의 몽골족이 이주해 왔고 특히 몽골족의 생활에 필요한 목장이 잘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백백태자의 아들 六十奴의 중국행은 명 태조의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홍무 23년(1390) 秋 7월 명나라는 백백태자의 아들 六十奴와 火者 卜尼를 중국으로 소환하자, 고려에서는 金乙祥을 보내 호송하게 하였다.<sup>48)</sup> 이들은 제주도에서 이미 몇 년을 생활하였으므로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숙지하였을 것이다. 제주에서 고려를 거쳐 명나라로 갔으므로 고려에서는 찬성사 정몽주로 하여금 백백태자의 아들 六十奴를 위한 연회를 베풀어 위로케 해 주었다. 六十奴가 말하길,

제주에서 생산되는 말의 명성이 중국에 알려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주에 이미 5~6년 있었으나 좋은 말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국할 때에 (명)황제에게 한 마리도 선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sup>49)</sup>

47) 『高麗史』 권137, 신우 14년 12월조, 『高麗史節要』 신우 14년 12월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洪武 15년(1382)에 양왕의 후손과 백백태자 일행이 탐라로 왔으므로 8년정도 탐라에서 생활했는데 왜 5, 6년이라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홍무22년(1389) 하 4월 갑인에 “故元 諸王之 來降者들을 탐라에 거하게 하였으며 또 사신을 보내어 탐라에 廬舍를 만들어주라고 하였다.”(『明史』(鼎文書局, 1979年) 권3, 太祖本紀 3, 洪武22年 夏4月甲寅條, 46쪽)

48) 『明太祖實錄』 권203, 3039쪽.

고 하였다. 정몽주가 이 말을 듣고 (고려)왕에게 고하니, 왕이 말하기를,

중국이 누차 우리에게 말을 헌납하라는 것은 오로지 제주가 있기 때문이다. 육십노의 말이 이러하니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고 없는 것을 우리가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sup>50)</sup>

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 마필 진헌 문제는 고려와 명나라간에 민감한 문제였는데 제주에서 생활한 몽골 후예인 육십노가 명나라 황제에게 제주도의 실상을 보고하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몇 일 지나 고려 왕은 육십노의 역할에 대한 기대때문인지 “正殿에 나가서 육십노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육십노가 말 한필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명 황제는 육십노에게 은 50냥, 鈔 50錠을 하사하였고, 卜尼에게는 은 20냥과 鈔 10錠, 衣 각 一袋를 하사하는<sup>51)</sup> 방식으로 성의를 표하였다. 이는 중국 내지의 귀부 몽골족의 대우에 비하면 소략하다고 볼 수 있다. 그 해 10월에 육십노는 경사에서 다시 제주로 돌아왔으나 일년 후 죽었다. 명 태조는 백백태자의 아들 六十奴를 경사로 불러 제주도의 마필 상황이나 故元 후예들의 제주 생활상을 탐문하였을 것이다. 원대는 물론이고 명초까지도 제주에는 胡人부락이 형성되어 있었다.<sup>52)</sup>

명 태조는 홍무 25년((1391, 공양왕 3년)에 다시 운남 양왕의 자손 愛顏帖木兒 등을 고려에 보내 탐라로 轉送하게 하였는데<sup>53)</sup> 이는 실상 원나라 제왕의 뜻에 따른 조치였다고 하며<sup>54)</sup> 여비 鈔 50錠을 하사해 주었다.<sup>55)</sup> 『고려사』에는 기록이 좀더 자세한데 원나라 양왕의 자손 愛顏帖木兒 등 4명을 탐라에서 백백태자 등과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49) 『高麗史』 권45, 공양왕 2년 4월 13일.

50) 위의 책.

51) 『明太祖實錄』 권203, 3039쪽.

52) 『明太祖實錄』 권15, 1385-1386쪽.

53) 『高麗史節要』 제35권, 공양왕 4년 3월조, 『皇明大政記』(明 萬曆刻本) 권4.

54) 『성호사설』 제21 권, 경사문, 小事大.

55) 『明太祖實錄』 권215, 3171쪽.

이처럼 명나라는 지속적으로 故元의 후예를 탐라로 이주시켰으며 탐라에 있던 백백태자는 홍무 2년에 아들 육십노가 중국에 갈 때, 말을 진상하지 못한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인지 建文 2년(1400) 명나라에 謁者를 보내어 말 3필과 금가락지를 바쳤다.<sup>56)</sup> 영락 2년(1404) 10월에 백백태자는 제주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니<sup>57)</sup> 탐라에서 약 20년 이상 생활한 셈이다. 백백태자가 죽은 후에도 부인은 제주에서 약 40년을 더 살았으며 병조에서는 “백백태자의 처가 나이 많고 빈궁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니, 제주에 명하여 매년 의복과 양식이며 惠養할 물건을 주어 특별히 存恤을 더하라. 또 外甥인 林鬱은 군역에 차출하지 말고 오로지 봉양을 말도록 하라”<sup>58)</sup>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백백태자, 아들 육십노, 부인은 모두 제주에서 생을 마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명 태조 홍무 시기 몇 차례에 걸쳐 운남의 몽골 종왕인 양왕의 후손과 백백태자의 가족, 그리고 복원을 멸망시키고 나서 귀순한 몽골 종왕을 제주로 이주시키는 전모를 살펴보았다. 명 태조가 탐라를 안정시키는데는 鞏固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민부상서 張子溫의 表文<sup>59)</sup>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지만, 백백태자의 아들 육십노가 중국에 가서 명 태조를 알현하고 故元 후예의 생활상이나 마필 진헌 등 고려와 명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Ⅲ. 故元 後裔의 흔적

명나라 초에 故元 후예를 이국으로 보낸 곳이 비단 제주도만이 아니었

56) 『定宗實錄』(『朝鮮王朝實錄』중 『定宗實錄』) 5권, 定宗 2년(1400) 9월 16일.

57) 『太宗實錄』(『朝鮮王朝實錄』중 『太宗實錄』) 8권, 太宗 4년(1405) 10월 4일.

58) 『世宗實錄』(『朝鮮王朝實錄』중 『世宗實錄』) 103권, 世宗 26년(1444) 3월 3일.

59) 『高麗史』 권43, 공민왕 21년 4월 임진조.

지만<sup>60)</sup>, 그 규모나 후에 미친 영향력으로 볼 때 제주도는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원대에 쿠빌라이가 탐라를 중시하여 관부를 설치하고 다루 가치를 비롯한 관원을 파견해 왔으며 상당한 수의 주둔군, 목인(牧人), 유배인들의 이주가 있어<sup>61)</sup> 명초에 故元 후예의 제주 이주가 가능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초 주원장이 운남지역을 비롯한 몽골족의 잔재를 일소한 후, 故元 후예의 일부를 제주로 이주시킴으로서 제주도에는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梁, 安, 姜, 對의 4개 성씨가 있다.<sup>62)</sup> 『朝鮮氏族統譜』에는 이들 4개의 성씨 외에 張氏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운남에서 이주한 양왕의 후손, 백백태자와 관련이 있다.

첫째, 對氏의 경우 명초에 운남을 평정하고 梁家 王屬을 제주에 안치하였다<sup>63)</sup>는 기록에서 운남의 양왕의 후손이 對氏로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명초에 제주로 오지 않았던 일부 양왕의 후손은 明이 건국되고 나서 그대로 운남에서 숨어 지냈는데 이들은 성을 ‘太’로 바꾸었으며<sup>64)</sup> 그 후손들이 지금도 운남성 昆明市 官渡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對는 太와 음이 비슷하므로 양왕 후손이 對氏로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張氏인데 結城張氏始祖甲은 원나라 伯子의 戶長이라는 기록으로 봐서<sup>65)</sup> 양왕의 후손과 함께 제주로 온 위순왕 寬徹普化의 아들인 伯伯太子의 가족이 張氏라 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姜氏, 梁氏는 始祖를 살펴볼 수 없고 단지 貫鄉만 있는데 雲南이

60) 『明史』 권327, 外國 八 韃靼傳, 8466쪽. “既有言玉私元主妃者, 帝怒, 妃慚懼自殺. 地保奴口出怨言, 帝居之琉球.”

61) 배숙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研究』 제76집, 2012년 2월.

62)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濟州牧, 95쪽, 민족문화추진회, 1981년. 『研經齋全集外集』 권 61, 耽羅梁姓, “梁王把兀刺瓦爾密, 元世祖之後也. 明太祖平雲南, 梁王自經死. 太祖遷其家屬於耽羅. 濟州中梁, 安, 姜, 對皆其裔也. 土着梁姓者本良而後改梁.”

63) 尹昌鉉, 『朝鮮氏族統譜』(漢城圖書株式會社, 大正 13年)

64) 林峰, 『元末代梁王遺子被賜姓太』, 『雲南蒙古文化通訊』 第3期, 2002년 12월, 73쪽. 중국 운남성 곤명시 관도지역에는 太氏 자손들이 대대로 이곳에 선조를 安葬했기 때문에 太家河, 太家山, 太家地라는 지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65) 『朝鮮氏族統譜』

라 되어 있다.<sup>66)</sup> 제주도에 남아있는 『호적중초』에 ‘雲南’을 본관으로 하는 姜氏는 없고, ‘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姜氏만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호적중초』를 만들 즈음에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났으므로 ‘대원’과 ‘운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sup>67)</sup> 그 밖에도 雲南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元氏<sup>68)</sup>도 있다고 하나 원씨의 경우는 다른 사료나 『호적중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故元의 운남 우승이었던 觀音保처럼 부대를 이끌고 內附한 경우에 관직을 제수하고 李觀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이 보인다.<sup>69)</sup>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원나라가 망한 후에 몽골, 색목인들은 대체로 漢姓으로 바꾸었다.<sup>70)</sup> 제주도에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제주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안타깝게도 현재 이들 후손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故元 후예들은 대부분 제주지역에서 생을 마쳤으므로 제주도에는 이들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남아 있다. 특히, 서귀포 서남부 지역에 王子墓<sup>71)</sup>, 왕자골<sup>72)</sup>, 梁王子 터<sup>73)</sup> 등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하원리의 『호적중초』에서도 ‘大元’ 후예의 성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 法華寺가 위치해 있다.

66) 『朝鮮氏族統譜』

67) 필자의 2012년 전개논문 참조.

68) (국역) 『東史綱目』Ⅷ, 제15하(민족문화추진회, 1979), 126-7쪽.

69) 『明太祖實錄』 권152, 2389쪽. “洪武十六年二月庚子, 征南將軍穎川侯傅友德, 遣人送故元雲南右丞觀音保, 泰政劉車車不花及僧段世長等一百六十人至京, 獻馬一百七十匹, 賜鈔有差, 仍各賜其家屬衣服, 尋以觀音保爲金齒指揮使, 賜姓名李觀.”

70) 『明太祖實錄』 권109, 1815-6쪽.

71) 朴用厚, 『남제주군지』, 도서출판 상조사, 1978년, 96쪽.

72) 위의 책, 하원동 21번지 일대로서 ‘간장’이라고 통칭되는 곳에 여씨가 소유했던 밭을 呂家田이라고 한다. 이 밭의 북쪽에 왕자묘가 자리잡고 있어서 중국성씨와 왕자묘를 연계하여 이 묘가 백백태자의 묘일 것이라 추정된다. 경술 국치 후 왜구가 묘안에 寶器가 있을까 발굴하였기 때문에 邱墟가 되었다. 중문면 하원리 경계와 군산 동북 기슭에 “왕자골”이 있는데, 이 이름은 왕자묘에 기인한 것이다.

73) 高炳五 朴用厚 共編, 『元 大靜郡誌』, 博文出版社, 1968년, 93쪽. 梁王子遺墟은 和順里에 있으니 지방 故老들이 梁王子田이라고 하며 지금은 大路가 되었으며, 현재 서귀포시 화순리의 GS 25의 위치라고 한다.

법화사는 “至元 6년 기사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至元 16년 기묘년에 마쳤다”는 명문 기와가 발굴되어<sup>74)</sup> 이 사찰이 원나라의 탐라 통치 시기에 중창이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나라 때 良工이 만들었다는 彌陀三尊佛像이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彌陀三尊佛像은 후에 명나라에서 가져갔는데 그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명나라 영락제는 黃儼, 韓帖木兒 등의 사신을 파견하여 삼존불상을 구할 뜻을 조선에 전하였다. 태종은 황엄 등이 동불상을 가지러 간다는 것을 핑계로 제주도의 형세를 파악하고자 하는 명나라 황제의 의도가 있다는 주위의 권유로 金道生과 朴護를 제주에 보내어 법화사의 동불상을 가져오게 하여 황엄 등에게 전해 주자 가지고 명나라로 돌아갔다.<sup>75)</sup>

명 태조 홍무시기에는 백백태자와 그의 아들 육십노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으므로 故元 후예들의 동향을 비롯한 제주도의 정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죽고 난 후, 제주를 탐문하고자 하는 영락제의 의도도 있었을지 모르나 銅製 불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만족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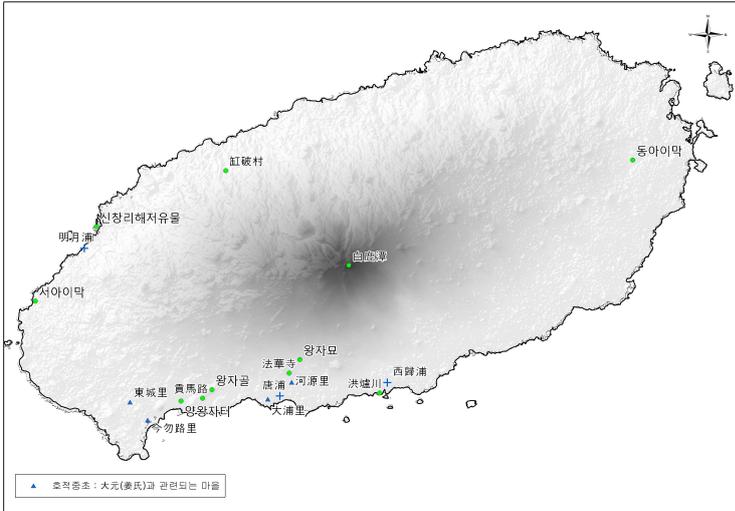
그렇지만, 법화사의 중창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원나라가 탐라를 직접 통치한 시기였고 법화사에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으며, 大元(雲南도 포함되었으리라 추정)을 본관으로 하는 『호적중초』가 발견된 일부 지역이 법화사와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러므로 아래의 서귀포 서남부 지역에 故元 후예들이 거주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sup>76)</sup>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전해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故元 후예들의 거주지를 복원시켜 보았다. (<지도 1> 참조)

74) 제주대학교 박물관, 『法華寺地』(서귀포시) 조사보고 제1집(1992), 제7차 발굴조사보고서(1997) 참조.

75) 『太宗實錄』(『朝鮮王朝實錄』중 『太宗實錄』) 권11, 太宗6年4月庚辰條. 太宗6年7月己酉條 등을 참조.

76) 이 지도에는 원대에 설치된 동아이막, 서아이막과 원대 대 중국의 항구로 이용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명월포, 당포, 서귀포 등도 표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2012년 전개 논문과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中國學報』 제 65집, 2012년 6월을 참조하기 바람.

<지도 1> (故元 후예의 거주지)



故元 후예들의 선조는 몽원제국이 운남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諸王·仕宦·鎭戍兵丁·牧人 등의 이유로 이주해 왔는데<sup>77)</sup> 몽골 중왕의 운남 출진도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탐라지역은 원나라때 중왕의 출진은 없었지만 운남지역과 비슷한 유형의 이주가 정책적으로 단행되었으며<sup>78)</sup>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몽골족의 잔재가 늦게까지 남아 있던 지역이다. 운남 지역도 또한 마지막 중왕인 양왕 바자라와르미가 명 태조 주원장에 저항하여 복원을 원조하면서 중국에서 마지막까지 몽골정권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결국 명 태조에 의해 평정되고 몽골 후예의 제주 이주가 단행되었는데 이들 몽골족은 이미 운남의 서남 변경지역에서 상당한 세월 동안 생활하였기 때문에<sup>79)</sup> 다시 제주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운남의 다양한 종족

77) 察古你汗, 「蒙元時期入滇蒙古人管窺」,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1卷 第6期, 2009年11月.

78) 필자의 2012년 전개논문 참조.

79) 현재 운남에 거주하는 몽골족을 “운남몽골족”이라 칭하는데, 雲南省 玉溪市 通海縣 興

의 문화적인 요소가 융합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이다.

### 맺음말

원대 운남지역은 운남왕, 양왕 등 몽골 종왕이 출진하기 시작하여 운남 행성과 병행하여 통치하다가 원나라 말기 양왕이 전제 정치를 하였다. 운남왕, 양왕의 계보를 추적해 보고 襲爵되는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양왕은 進封되어 운남을 떠났다. 그러므로 볼라드와 마지막 양왕 바자라와르미의 후손이 제주로 이주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 태조 주원장이 중원을 정복한 후에도 원나라의 마지막 양왕인 바자라와르미는 운남지역을 고수하며 복원과 통교하였다. 명 태조가 홍무 원년에 대도를 공략할 때 포로가 되었던 위순왕의 아들 백백태자는 명나라에 귀화한 후, 양왕을 초유하기 위해 운남으로 보내졌지만 실패하고 이후 운남에 거하였다.

홍무 15년(1382) 윤 2월 명 태조 주원장이 운남을 정복한 후, 몽골 종왕의 후손과 토착세력 단지 일족은 남경으로 송환되어졌다가 일부는 다시 한반도의 제주도로 이주해 오게 된다. 이렇게 하여 중국의 서남 변경지역의 몽골 종왕 후손이 한반도 남단의 제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미 원나라때 직접 통치로 관부가 설치되어 다루가치의 과전이 이루어졌고, 원나라의 정책하에 주둔군, 유배인, 목인 등이 이주해 왔었고, 명초까지 호인 부락도 있었기 때문에 몽골 후예들이 생활하는데는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백백태자는 명 태조가 양왕을 초무하기 위해 운남으로 보냈던 인물로서 양왕의 후손과 함께 다시 제주로 이주해 왔으므로 양왕의 후손보다 경제적인 대우와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백백태자는 어떻게 보면 양왕의 후손을 비롯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후예를

---

蒙鄉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백백태자의 아들 육십노가 고려를 경유하여 중국을 왕래하며 고려-명간의 중요한 문제였던 마필 문제를 비롯한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하였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명나라 초기에 운남에서 이주한 양왕의 후손과 백백태자의 가족은 원 세조 쿠빌라이의 근친 종왕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일찍이 원나라의 황실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故元 후예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인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이들의 생활 습속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명 태조의 발언도 일리가 있다.

제주도에는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梁, 安, 姜, 對, 張, (元)氏가 있다. 양왕의 후손은 對氏, 백백태자의 가족은 張氏, 그 밖의 성씨는 운남을 본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원나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와 운남을 본관으로 한 성씨를 구분한 것은 원말·명초 운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운남지역은 명나라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약 10여 년 이상을 중국에서 독립된 정권으로 복원과 관계를 유지하였다. 명 태조가 운남지역을 평정한 후 양왕 후손과 위순왕의 아들 백백태자 일행이 제주로 이주되어졌던 것이다. 제주도 곳곳에 남아있는 『호적중초』는 이들의 이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작성되었으므로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姜氏'라 할지라도 굳이 "운남"에서 온 성씨로 구분하지 않고 故元의 후예이기 때문에 "大元"이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故元 후예의 거주지는 범화사를 거점으로 서귀포 서남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범화사는 원나라의 탐라 통치 시기에 중창이 완공되었으며, 이 절에 원나라 良工이 만든 미타삼존불상이 소장되어 있었다. 또한, 인근의 하원리에서 발견된 『호적중초』에 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거주지가 있으며, 이주 집단과 관련되는 여러 이야기(왕자묘, 왕자골, 양왕자 터 등)가 전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故元 후예들은 이미 운남의 서남 변경지역에서 상당한 세월 동안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시 제주도로 이주할 때에 운남의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인 요소

가 어느 정도 융합되었을 것이다.

(논문투고: 2012.4.15. 심사완료: 2012.5.20. 게재확정: 2012.6.2.)

주제어: 몽골종왕, 원말·명초, 운남, 몽골후예, 제주, 이주

关键词: 蒙古宗王, 元末明初, 云南, 故元後裔, 濟州, 移住

Key words: a prince from royal family members, late Yuan-early Ming, Yunnan, meta descendants of formmer Yuan empire, Jeju, Immigration.

K C I

## 참고문헌

## 1. 원자료

- 『元史』, 中華書局 標點本, 1977년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新元史』, 臺灣 開明書店, 民國 51年
- 屠寄撰, 『蒙兀兒史記』, 北京市 中國書店, 1984년
- 胡蔚, 『增訂南詔野史』
- (明)倪輅(清)王崧校理(清)胡蔚增訂; 木芹會證, 『南詔野史會證』, 雲南人民出版社, 1990년
- 『滇考』, 臺灣 成文出版社, 2007년
- 『明史』, 臺灣 鼎文書局, 1979년
- 『明實錄』 중 『太祖實錄』, 『太宗實錄』(경인문화사영인본, 1989년)
- 『朝鮮王朝實錄』 중 『太祖實錄』, 『太宗實錄』
- 『明史紀事本末』, 叢書集成初編本, 中華書局, 1985년
- 『鴻猷錄』, 叢書集成初編本, 中華書局, 1985년
- 『皇明大政記』(明 萬曆刻本)
-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81년.
- 『雲南通志』, 蘭州出版社, 2004년
- 方國瑜主編, 『雲南史料叢刊』, 雲南大學出版社, 2001년.

## 2. 연구논저

- 尹昌鉉, 『朝鮮氏族統譜』漢城圖書株式會社, 大正 13年
- (清)倪輅輯; 李埏校点, 『滇雲歷年傳』, 雲南大學出版社, 1992年
- 제주대학교 박물관, 『法華寺地』(서귀포시) 조사보고 제1집(1992), 제7차 발굴조사보고서(1997)

- 朴用厚, 『남제주군지』, 도서출판 상조사, 1978년,  
 高炳五 朴用厚 共編, 『元大靜郡誌』, 博文出版社, 1968년  
 라시드 앓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년  
 方齡貴, 『元明戲曲中的蒙古語』,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方齡貴, 『元史叢考』, 民族出版社, 2004年  
 [法] 韓百詩著 張國驥譯, 『元史諸王表箋證』, 湖南大學出版社, 2005年  
 李治安, 『元代政治制度研究』, 人民出版社, 2003年  
 周芳, 『元代雲南政區設置及相關行政管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년  
 高昌錫, 『濟州歷史研究』, 도서출판 世林, 2007년

### 3. 연구논문

- 王雄, 「明洪武時對蒙古人衆의 招撫和安置」,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年第4期.  
 察古你汗, 「蒙元時期入滇蒙古人管窺」,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1卷 第6期, 2009年11月.  
 林峰, 『元末代梁王遺子被賜姓太』, 『雲南蒙古文化通訊』第3期, 2002년 12월.  
 立石謙次, 『洪武朝平定雲南之戰研究』, 雲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0年  
 裴淑姬, 「蒙元제국의 雲南통치와 諸 宗族간의 소통」, 『東洋史學研究』 제 114집, 2011년 3월.  
 裴淑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研究』 제76집, 2012년 2월.

Yunnan during late Yuan dynasty and early Ming dynasty,  
and immigration of meta descendants of formmer Yuan to  
Jeju

Bae, Sook-hee(Gyeongsang National Univ.)

Since Yuan governed Yunnan mongolian Zong prince(宗王) such as the prince Liang(梁王) and the prince Yunnan(雲南王) became to be assigned to government positions conducting their duties of administration over Yunnan in parallel with Yunnanxingsheng(雲南行省). However, during later years of Yuan the prince Liang eventually became to acquire complete command over Yunnan. On tracing back genealogy of the prince Yunnan and the prince Liang and examing patterns of hereditary transmission of power and governmental positions to descendant it can be learned that the most the prince Liang were promoted leaving Yunnan. Therefore it could be inferred that mainly descendants of Bolad and Bazalawalemi, the last prince Liang immigrated to Jeju(濟州). Bazalawalemi, stubbornly defended Yunnan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 in loyalty to Northern Yuan(北元), even after Taizu of Ming(明太祖) conquered central regions of China. When Taizu, founder of Ming attacked Great capital, the prince Bai bai(伯伯太子), a son of the prince Weishun(威順王) was captured as a prisoner of war surrendering to Ming, Later he was sent to Yunnan with a mission to persuade the prince Liang to surrender to Ming, but ended in failure. Since then he stayed dwelling in Yunnan. After Yunnan was finally conquered on the 13th year of Hong-wu, a part

of mongolian Zong princes and a large number of Duan's family members(段氏), a group of powerful local people, were patriated to Nanjing(南京), then capital of Ming. However, some of Zong princes and Duan's family members moved again for immigration to Jeju in Korean Penninsula. This historical process made the descendants of mongolian Zong prince in south western border land of China immigrate to and settle on Jeju. Thus a close network between the two regions, far apart from each other was established.

Yuan had already established government offices on Tamla(耽羅) and dispatched a Darugachi as a head of the offices, directly controlling the region. Furthermore under it's social and political policies Yuan maintained garrisons, also, had the exiles and ranchers of horses immigrate and dwell on Jeju. Because of these earlier activities before the immigration to Tamla, it could be presumed that the meta desadent of former Yuan did not have experined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ving. Especially, since the prince Bai bai was a figure whom Taizu dispatched to Yunnan to persuade the prince Liang to surrender he was socially and economically treated better than the descendents of the prince Liang when the prince Bai bai immigrated to Jeju, together with the desendants the prince Liang. In some sense the prince Bai bai could be regarded as holding a position of managing, supervising and representing all mongolian descendants dwelling on Tamla at that time including the descendents of the prince Liang. Therefore, it could be believed that whenever necessary, Liushinu(六十奴), a son of the prince Bai bai, traveled to and from Ming through Korea with a mission to negotiate on issues of a tribute of horses, an important matter between the two contries of Koryo and Ming, also

reporting to Ming about various issues concerning general situations on Jeju. Life of the prince Bai bai, who essentially acted as a head for the immigrant community of the lives of his son, Liushinu and his wife could be found in detail on Chaoxianwangchaoshilu(朝鮮王朝實錄).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matter of the immigration during early period of Ming is that all the descendants of the prince Liang and all the family members of the prince Bai bai from Yunnan were directly related by blood to Kubilai. Early on during a time of Kubilai, Tamla had been utilized as one of important ranches of horse breeding for mongolian Yuan loyal families. This early development of Tamla helped to artificially transform the region as a suitable place providing comfortable environment for the meta descendants of former Yuan to maintain their customs and traditional life styles. Zhuyuanzhang(朱元璋)claimed that the immigration was arranged in consideration of the favorable environment existed on the Jeju region. His claim could be taken as having some sense to a certain extent.

On Jeju island there can be found family names of Liang(梁), An(安), Jiang(姜), Dui(對), Zhang(張)and Yuan(元). All of them have Yunnan in common as their original ancestral places. It can be further shown that the descendants of the prince Liang have the family name of Dui while the family members of the prince Bai bai have the family name of Dui, and that the rest of family names have their ancestral origins at Yunnan. On Dongguoyudishenglan(東國輿地勝覽), family names from Yuan dynasty were differentiated from the family names originating from Yunnan. This distinction was made to reflect speci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Yunnan

during late Yuan dynasty and early Ming dynasty. Matter of fact, Yunnan never surrendered to Ming and was never incorporated to a new system of Ming dynasty, lasting 10years as an independent region when Northern Yuan was established,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 in loyalty to Northern Yuan. Since Taizu of Ming finally was able to finally have Yunnan under his control, the descendants of the prince Liang of Yunnan and the dependants of the prince Bai bai, a son of the prince Weishun became to immigrate to Jeju.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on Hujizhongchao(戶籍中草) still subsisted on various scattered locations of Jeju island, the family name Jiang was not recorded as a family name originating from Yunnan even though the ancestral place of the family name, Jiang is actually Yunnan. Instead it was recorded as a family name originating from Great Yuan(大元). The reason for this could be that it may be sufficient enough to show that the people with the family name Jiang was also descendants of former Yuan empire. The seeming change of the origin of the family name Jiang could be attributed to substantially long years elapsed until Hujizhongchao was compiled after the immigration of the meta descendants of the prince Liang and the dependants of the prince Bai bai to Jeju.

In addition, evidence gained from this investigation revealed that dwelling places of the meta descendants of former Yuan is presumed to be established with Fahua(法華) temple as a base, including the temple's vicinities. The temple was completely restored during the period of Yuan's governance over Tamla. The temple had a statue of Mitasanzun(彌陀三尊) in its possession which was carved by highly skillful sculptors of Yuan. Also on

Hujizhongchao is found at Heyuan(河源) village near the temple family names with their ancestral places in Greater Yuan(大元) can be noticed. Furthermore, around their seeming dwelling places many folktales concerning a group of the mongolian immigrants have been orally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even to nowadays. These folk tales for example include such legends as a prince's tomb, a prince's valley and a housing site of the prince Liang. These can be supporting evidences illustrating natur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mongolian immigration.

K C I